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 손자선 토마스 (1844-1866)

손자선은 충청도 홍주(洪州) 거더리 마을의 3대째 교우 가정에서 태어났다. 안 안토니오 주교가 체포된 뒤, 덕산(德山) 관아에서는 압수한 돈과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보했지만, 이때 나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손자선 혼자서 물건을 찾으러 관아로 갔는데, 거기서 천주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체포되었다.

손자선은 옥에 갇혀 고문을 받고 배교를 강요당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았고, 관장은 그를 해미(海美)로 보냈다. 해미에서 두 다리가 부러지는 심한 고문에도 신앙을 지킨 그는 결국 공주(公州) 감영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1866년 주님 부활 대축일 전날이던 3월 31일, 교수형을 받고 23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이종상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대림 제3주일 · 자선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스바 3,14-18ㄱ

화답송 이사 12,2-3.4ㄴ ㄷ 5-6(◎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필리 4,4-7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루카 3,1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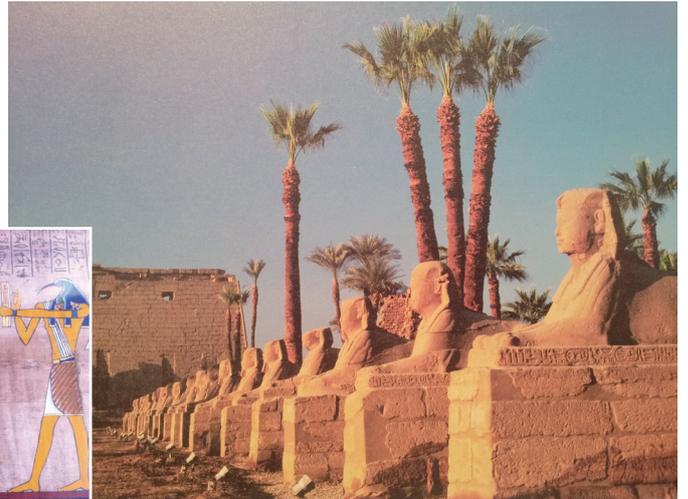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마음과 심장



「사자의 서」 중 '최후의 심판' 장면



고대 이집트

오늘 복음에는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루카 3,17)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타작마당은 낱가리의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던 곳으로 수확 때 특히 분주해지던 장소입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경에서는 평생 쌓은 선과 악을 헤아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장의 표상으로 자주 쓰였습니다(미카 4,12; 마태 3,12 등). 한편, 제2독서에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옛 이집트의 심판 신학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옛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 때, 뇌는 필요 없는 부분이라 여긴 반면, 심장은 소중하게 보관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 지혜가 자리잡은 곳이 심장이라 믿었기 때문인데요, 필리 4,7의 “마음”도 직역하면 ‘심장’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마음”의 대부분이 심장을 의역한 말입니다(창세 8,21 등).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높은 의학 수준에도 뇌와 심장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신관에서 심장이 맡은 역할을 이해하려면 「사자의 서」(Book of Going Forth by Day)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사자의 서」는 망자가 가게 될 사후 여행의 안내서로서, 그가 저 세상에 잘 도착하도록 도와줄 주문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문은 망자의 심장을 ‘마아트’의 깃털과 함께 달아 무게를 재는 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망자가 내세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이 의식으로 판단된다고 믿었으므로, 이집트인들은 망자를 묻을 때 「사자의 서」를 같이 매장하곤 하였습니다.

이때 망자의 심장 무게를 가능해줄 깃털의 주인 마아트네 이집트인들에게 법과 정의, 진리와 지혜의 여신이었습니다. 망자의 심장 무게가 마아트의 깃털과 같거나 가벼워야 저승의 신 ‘오시리스’에게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깃털보다 무거우면 ‘아미트’라 불리는 괴물에게 잡아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옛 이집트에서는 심장이 무거우면 죄 많은 사람이고 심장이 가벼우면 죄 없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탈출 10,1을 봅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집트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완강하게”는 “무겁게”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주님께서 파라오와 그 신하들의 심장을 무겁게 하셨다.’ ‘죄를 짓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집트인들을 겨냥한 경고에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우리 역시 ‘마음이 무겁다.’ ‘가볍다.’라는 표현을 쓰니 얼마나 흥미로운지요? 하느님께서 이집트 종살이에서 탈출한 옛 백성을 지켜 주셨듯이,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이 가볍도록’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8장 세상에서 형제애에 복무하는 종교 ② - 양립할 수 없는 ‘종교와 폭력’, 마지막 호소

“그리스도교 사랑은 고발하고, 제안하며, 문화적 사회적 계획에 투신하도록 이끌고, 또한 긍정적인 활동을 고무함으로써 선의의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게 한다”(「간추린 사회교리」 6항).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모든 형제들」은 각각 생태 위기와 평화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그리스도교 사랑의 초대장이며 제안입니다. 이제, 회칙 「모든 형제들」은 그 본성상 인간 존엄, 공동선, 사회적 약자 돌봄에 관한 신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종교가 결코 폭력과 양립할 수 없음을 밝히며 모든 종교 지도자에게 평화의 장인,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합니다(281-287항).

우선, “하느님을 향한 진실하고 겸손한 경배”는 생태적 전환의 삶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① “성스러운 모든 생명의 존중” 곧 온전한 창조 질서 보존으로, ② “다른 이의 존엄과 자유의 존중” 곧 인간 존엄과 인권 증진으로, ③ “모든 이의 복리를 향한 사랑의 투신” 곧 보편적 공동선 증진을 위한 헌신으로, 그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차별, 증오, 폭력’을 일으키며 “국민의 안보를 위협하고, 공황, 공포, 비관주의를 퍼뜨리는” 테러리즘은 종교에 기인(基因)할 수 없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적 범죄로 규탄받아야 합니다. 테러는 “종교적 본문에 관한 부정확한 해석과 악용” 그리고 “종교적 가

르침에서의 이탈”뿐 아니라, “굶주림과 빈곤, 불의와 억압, 자만심에 관련된 정책들”에서도 기인합니다. 그래서 회칙은 일부 종교 지도자의 무모함을 경계함과 동시에 온전한 사회 발전과 쇄신을 촉구합니다.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분열시키지 않고 모음으로써, 증오의 불길에 매달리지 않고 그 불길을 진화함으로써, 새로운 담을 쌓지 않고 대화의 길을 열어감으로써 평화의 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오히려 소진(消盡)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힘을 다 쓰면서도 유일한 보상이 평화라는 것을 아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끝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슬람 최고 지도자 아흐메드 알-타예브와 함께 발표한 선언을 되풀이합니다. 곧 ① 하느님, ② 인간 생명, ③ 모든 사회적 약자, ④ 보편적 형제애, ⑤ 자유, ⑥ 정의, 그리고 ⑦ 선의의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경로로서 대화의 문화를, 우리 행동의 강령으로서 상호 협력을, 우리의 방법과 표준으로서 상보적 이해를 채택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로써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든 사회 현안에 관한 ‘성찰의 원리, 판단의 기준, 행동의 지침’이라는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충실히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나는 평범한 사람인가요

어릴 때 살던 시골집에 가 보았습니다. 예전의 집은 없어지고 새로 지은 집이 들어섰습니다. 그 시절 저와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지런한 엄마는 새벽부터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고, 가마솥 밥을 해주셨습니다. 새벽 입맛이 뭐 그리 맛이 있었을까요. 간신히 몇 숟갈 떠먹고 등교했습니다. 남들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던 그때, 저는 한 가정의 평범한 아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음주로 인해 불안할 때가 많았습니다. 평소엔 유머 감각이 넘치고 유쾌한 분이셨지만, 술만 드시면 상처를 꺼내시며 다른 사람이 되곤 했지요.

그런 집안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남들 사는 것처럼 서로 부대끼며 사는 평범한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술 드시는 아버지의 딸로만 볼 것 같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곤 했습니다. 괜찮은 아버지의 모습도 있는데, 알코홀릭 아버지만 기억할까 봐 두려웠나 봅니다. 그때부터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받아쓰기 100점 맞는 큰딸, 그림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르며 대회에 나가 상도 타오는 딸이 되어 아버지의 기대를 채우고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딸로 자랐습니다.

특별하고 거창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늘 뭔가에 최선을 다하며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쉽 없이 달리는 야생마처럼 말이지요. 몸도 약한 제가 왜 그랬을까요. 작고 평범한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지 않을 것 같았던 거죠. 그랬던 제가 말입니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것들을 사랑하며, 하루의 '평범함'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그 안엔 얼마나 위대한 보물이 숨어

있는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길의 성녀, 리지의 아기 예수의 (소화) 테레사와 그 부모님 성 루이와 성녀 젤리 부부가 살아온 평신도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덕분입니다. 그분들은 평범한 사람이 될까 봐 전전긍긍하던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세피나, 우리는 특별하거나 거창한 행위를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 하느님께 사랑받는 위대한 존재예요. 평범한 일상을 기도로 성화하고, 작은 사랑을 담아 봉헌하면 하느님께는 결코 작은 사랑이 아니어요.' 아침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밖 새 소리에 감탄하고, 양파를 썰면서 노련해진 칼질에 스스로 놀라고, 귀찮은 설거지를 연옥 영혼을 위한 희생으로 바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깨어있기만 하면, 이 모두가 보물이 된다는 거죠. 평범하게 산다는 게 이토록 귀한 일이라니요.

성탄이 다가옵니다.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을 기억합니다. 여린 아기에게 요람은 초라한 구유입니다. 잘 나가는 율법 학자나 사제 가문 또는 촉망받는 예언자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하느님께서서 뭐 하나 내보일 것 없던 가난하고 평범한 집을 택하셨습니다. 그 평범함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비범함의 역사로 바꾸신 겁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역시 평범한 가정,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게 뭐가 두려울까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간 놓치고 살았던 작고 평범한 일상을 이제라도 한 걸음씩 살아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평범한 사람인가요, 특별한 사람인가요. ☺



교구
소식

동두천어린이밥집 포이마이노 직원 채용

모집 1명 (계약직, 추후 정규직 재임용 가능) 근무 주5일 (40시간)
장소 어린이청소년밥집 포이마이노 (동두천시 생연동)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부
제출 0810369khk@gmail.com 문의 010-3946-9018

한마음 사계 피정 - 2025년 2월

일시 2/7(금) 16시 ~ 9(주일) 13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주제 하느님 길을 걷다 강사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서울대교구)
회비 1인 20만원 (1인 1실)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 교구소식 참조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12/21(토) 19:30~21시 장소 정발산 성당 1층 강당
주제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강사 강주석 베드로 신부
문의 031-948-8105

2025년 신앙교육원 겨울 계절 학기

일시 1/15~2/26, 매주(수) 19:30~21:40 [6주간] 장소 백석동 성당
대상 신앙교육원 졸업생 선착순 100명 (대면) 회비 12만원 (대면/비대면 동일)
강사 송봉모 토마스 신부, 정천 사도요한 신부, 이승엽 미카엘 신부
문의 031-850-1545, 010-5578-4898 **신청** 

※ 비대면 영상 강의는 누구나 신청 가능 ※ 홈페이지 sd.uca.or.kr/set 참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당 사무실에 비치, 신규 1회 제출)
발급 시기 2025년 1월 15일경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서 양식은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 동의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제출 동의서 효력 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신자 성경 읽기 12/15(주일)~21(토) : 요한 1,35-51  12/28(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시청

[담화] 제41회 자선 주일 담화

제41회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내용**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2/2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짐 좀 내려 놓으시지요'
강사: 정영화 요셉 (의정부교구 성령봉사회장)
문의: 010-2127-0032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한라산-해돋이): 12/29(주일)~1/1(수)
눈꽃산행: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2/7(금)~9(주일),
2/21(금)~23(주일), 2/25(화)~27(목)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눈꽃산행: 1/17(금)~19(주일),
1/23(목)~25(토), 2/8(토)~10(월),
2/14(금)~16(주일), 2/22(토)~24(월)
추차도포함성지순례: 3/1(토)~4(화)
생태순례: 3/15(토)~17(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12/20(금)~23(월), 1/3(금)~6(월),
1/17(금)~20(월), 2/7(금)~10(월),
2/21(금)~24(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 (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힐데가르트 영성학교 2기 - 입문

일시: 1/31(금) 15시 ~ 2/2(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25만원 (접수 후 입금)
iM뱅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청주 초정성령회관 송년대피정

일시: 12/27(금) 20시 ~ 29(주일) 14시 [2박3일]
장소: 초정성령회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강사: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버스: 조치원 역 저널 (18:20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출발)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가정회복 은혜의 낮 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2/16(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수도원 성탄 · 연말 피정

성탄전례피정: 12/24(화) 19시 ~ 25(수)
송년감사행복피정: 12/31(화) 19시 ~ 1/1(수)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4호선 미아역)
회비: 2만원 / 문의: 010-9816-0072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목)~10(금), 2/14(금)~2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2/14(금)~15(토), 2차: 2/15(토)~16(주일)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 (선착순) / 회비: 10만원 (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이나시요영신수련: 12/28(토)~1/5(주일) [8박9일]
예수마음기도: 1/1(수)~1/5(주일) [4박5일]
1/1(수)~1/9(목) [8박9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교육 · 모집 ▶▶

파주 베타니아 클리닉 봉사자 모집

클리닉: 매월 둘째 주일 14시~16:30
모집: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소아과 의사
문의: 010-2032-0455 파주 베타니아

의정부교구 기사사도회 모집

내용: 교구 행사 시, 교통 봉사 및 질서 유지
문의: 010-2762-9575 조성환 가브리엘 회장

재속 프란치스코회 의정부지구 지원자 모집

16세 이상 성실한 가톨릭신자이며,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과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분
접수: 2/28(금)까지
문의: 010-2369-4574 (양성담당)
010-3207-2525 (지구봉사자)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전문 봉사자 모집

대상: 청소년, 사회복지, 상담학과 전문학사 이상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한 여성
인원: 5명 내외 (자원봉사시간 인정)
문의: 010-5169-7977, flowermali@daum.net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노비파스 음악중고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학력인정 대안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전입생, 전액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무료), 음악 중점 교육과정 운영
※ 학교 홈페이지 novitas-s.goegp.kr 참조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접수: 2차_1/6(월)~23(목) 17시까지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 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법, 88학점 (수업료의 50% 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
gscl.catholic.ac.kr/gscl/index.do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음악원: 일산 (금) 11시
문의: 010-9842-8818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파주시장에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idoran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의
성 소 모 임	살레시오 수도회	매월 넷째(토) 14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21(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소에 관심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0-5195-3217

티업오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21(토) 09:50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파주)
대상: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55세 이하 신자
문의: 010-2607-6324, 010-4383-5050

자원봉사자 모집 - 치위생사, 치과 조무사

이주민을 위한 무료 치과 진료
대상: 치과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분
일시: 주일 13시~17시 [월1회]
문의: 031-948-8105 파주 EXODUS

오남 성당 사무원 모집

자격: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업무: 사무행정, 회계업무, 행사지원 (경력자 우대)
서류: 자기소개서, 본당신부확인서(또는 추천서),
이력서, 교적사본, 관련자격증사본(해당자)
접수: 채용 시까지
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접수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오남 성당 성가대 지휘자 모집

일시: 매 주일 11시 교중미사
자격: 천주교 신자로 성가대 지휘 유경험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학력, 일반경력 및
가톨릭음악 관련 활동 포함)
접수: 우편 또는 이메일 onam1@uca.or.kr
성가대 연습: 평일 및 주일
※ 소정의 수교료 지급 (채용시 마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 자율전공(사회복지·상담심리)
접수: 12/31(화)~1/3(금)
문의: 043-270-0100, 0119

성가발성교실 "소리높여주찬양" 초대

평화를 노래하는 모니카교회음악원 성가발성교실
일시: 1/4(토) 13시
장소: 모니카합창 연습실 (주엽동)
대상: 성가를 사랑하는 모든 신자
문의: 010-5245-2848 심준보 베드로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 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성관리, 경비 등
접수: 1/17(금)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시~16시
문의: 02-990-9366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2/14(금)~25(화) 희년 이탈리아 (455만원, 대한항공)
3/7(금)~18(화) 희년 이탈리아 (455만원, 대한항공)
3/9(주일)~20(목)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460만원)
3/11(화)~21(금) 동부유럽 4개국 (395만원)
4/5(토)~16(수) 희년 이탈리아 (435만원, 독일항공)
문의: 02-2281-9070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025년 동반자 100만원 할인 이벤트
3/17(월)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550만원)
3/17(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535만원)
4/22(화), 5/6(화), 5/13(화), 5/20(화)
이탈리아 일주 (11일, 465만원)
5/19(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075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1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0(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17(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3/14(금)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3/28(금) 사도 바오로 발자취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80만원)
5/6(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2일, 56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라파엘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5(수) 나가사키 (4일, 139만원, 아시아나)
2/24(월) 이집트 일주 (14일, 530만원)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3/9(주일)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4/7(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아시아나)
4/22(화) 이탈리아 희년 전대사 (11일, 41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DIocese of Uijeongbu

도/서/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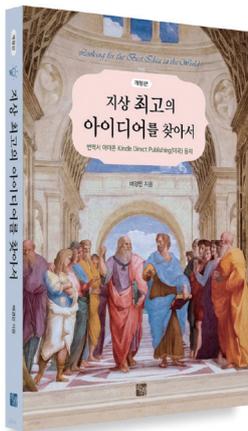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지적 여행!

지상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개정판)

배경민 | 388면 | 으뜸사랑 | 12,000원
구매 | 의정부 바오로딸 서원, 대형 서점 및 인터넷

본서는 아이디어 발원(發源)을 집대성하여 대화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은 '지식 정보서'다. 아이디어를 얻기까지 갖춰야 하는 각각각색의 필수 요소들을 쉽게 서술하며,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지적 향연을 펼친다. 인류가 역사에서 체험한 놓칠 수 없는 여러 이야기부터 유명인과 위인들의 성공담까지 동서고금의 다채로운 주제를 유익하고 흥미롭게 전개하여 넓은 혜안과 통찰력의 탁월한 지식세계를 펼쳐낸다.

문의: 031-592-2554



자선 주일

오늘 대림 제3주일은 자선 주일입니다. 이날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국천주교회가 특별히 정한 날입니다.

‘자선’은 히브리어로 ‘구제하다’라는 뜻의 [나탄]인데, 이는 없는 이에게 대가 없이 필요한 걸 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동족에 관한 규정이나 가난한 이에 대한 도리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레위 25,35-38 참조). 또한 그리스어로는 ‘동정’을 뜻하는 [엘레에모쉬네]로, 자비로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가리킵니다(마태 6,1-4; 루카 11,41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984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선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대림 제3주일을 자선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대림 시기가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신자들이 주님을 가장 합당하게 맞이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자선을 베푸는 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선 주일을 통해 모금된 특별 헌금은 교구별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어떤 이는 자선을 단지 물질적 시혜를 베푸는 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선의 진정한 의미는 ‘착한 사마리아인’(루카 10,29-37 참조)처럼 온 마음을 다해 고통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위해주며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통받는 이들과 동일시하시며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마태 25,40)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재화를 사용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렘톤 두 닢을 봉헌한 가난한 과부’(마르 12,41-44 참조)처럼 자신도 충분치 않은 가운데 내놓는 희생이야말로 참된 자선이 됩니다. 사도 바오로 역시 “저마다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하거나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기쁘게 주는 이를 사랑하십니다.”(2코린 9,7)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매해 자선 주일에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마흔한 번째로서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들은 대림 제3주일, 우리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2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2>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본당공지

성탄 판공 성사

성탄 판공 성사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매 미사 전, 후에 보시고 성사표는 고해실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영적 예물

12월 25일은 주님 성탄 대축일이며 행주 성당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영적 예물 카드를 작성하여 구역 반장님께 전달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본당 사목협의회

일 시: 12월 15일 오늘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공동체소식

전례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화)		12월 25일(수)
평일 미사	오전 11시	오전 11시
성탄 성야	오후 8시	

※ 주님 성탄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없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일 시: 2025년 1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11시

자선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자선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성 (12월 02일 - 12월 08일)

교 무 금 2건 100,000원
주 일 헌 금 1,108,000원

감 사 헌 금

최성윤 10,000원 윤정희 5,000원
이흥매 20,000원

교중 미사 주송자, 예물 봉헌 담당

12월15일	주송자	전옥자(수산나)
	양경희(루시아), 류은희(소피아)	
12월 22일	주송자	오정화(아녜스)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	